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지급

문화·관광 市 공식 관광사이트에 '채팅봇' 도입

사회·복지 모임·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건물 신축 시 '유아놀이방' 설립 의무화

환경·안전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에서 노후 디젤자동차 통행 금지

도시계획·주택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추진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도시경관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 강화 및 광고세 신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지급

홍콩 / 사회·복지

홍콩특별행정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등 9개 업종의 소상공인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배경

- 홍콩 입법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250억 홍콩달러의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2020년 2월 21일 통과시킴
- 코로나19 관련 구제기금이 조성된 이후 홍콩의 관련부처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조속하게 혜택을 받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구제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식품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2020년 3월 5일 발표

주요 내용

- 보조금 신청대상
 -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일반 음식점, 수상 음식점(marine restaurants), 공장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게는 20만 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
 - 간이음식점(light refreshment restaurants), 신선식품점(fresh provision shops), 식품공장, 제과점, 찌우메이(燒味)¹⁾와 루웨이(滷味)²⁾ 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주에게는 8만 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
 - 노점상 허가를 받은 업주에게는 5,000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
- 보조금 신청조건
 - 2020년 2월 14일 이전에 환경보호국에서 발행한 영업 허가증을 보유할 것
 - 보조금 신청일에 영업 중일 것

1) 홍콩식 BBQ를 총칭하는 말

2) 루웨이(滷味)는 간장을 넣고 오랜 시간 푹 삶은 요리를 말함

-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보조금 승인일까지 허가를 양도, 반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것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보조금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개월임
 - 보조금 신청서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보조금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여 신청서 수령 확인서 및 신청 번호를 전달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하며, 적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https://sc.isd.gov.hk/TuniS/www.info.gov.hk/gia/general/202002/21/P2020022100713.htm>

https://www.fehd.gov.hk/tc_chi/events/Anti-epidemic_Fund/index.html

<https://sc.isd.gov.hk/TuniS/www.info.gov.hk/gia/general/201909/30/P2019093000287.htm?fontSize=1>

문 해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市 공식 관광사이트에 ‘채팅봇’ 도입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일본 교토市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객의 의문이나 문의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市 관광 공식사이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팅봇을 도입

배경

- 교토市는 관광정보 제공이나 관광 만족도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내·외국인 전용 교토 관광 공식사이트를 운영 중
 - 市는 지속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국제 문화관광도시 교토를 목표
- 市는 교토 관광에 대한 의문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공식사이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회화 프로그램(이하 ‘채팅봇’)을 도입
 - 채팅봇 도입을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관광객의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

주요 내용

- 교토종합관광안내소의 정보를 활용한 회화 설계
 - 교토종합관광안내소에 들어온 주요 질문을 활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작성
 - 관광지, 이벤트, 교통정보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선택사항에 기초해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선택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 아래 입력란에서 직접 입력되는 단어를 바탕으로, 준비된 답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답변을 제시
 - 채팅봇은 대화결과를 학습하여 점차 답변의 정확성을 높임
- 관광객의 요구 파악과 속성별 정보 전달 강화
 - 채팅봇은 이용자가 질문한 내용을 추적하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 전달이나 향후 정책 결정에 이바지
 - 질문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의 흥미나 취향을 분석해 해당 특정인만을 위한 맞춤 관광

정보를 그 사람에게만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흥미·관심을 고려한 정보 전달을 강화함으로써 단골 확보 및 관광소비액 증가를 도모

○ 교토市 인정 통역 가이드¹⁾를 활용한 답변의 정확성 확보

- 채팅봇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교토의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교토市 인정 통역 가이드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답변
 - 교토市 인정 통역 가이드는 채팅봇에 질문·답변을 추가·수정함으로써 자동 응답 내용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 교토市 인정 통역 가이드를 활용하면 언어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교토 관광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통역 가이드를 활용한 전문적인 답변체제 정비는 전국 최초임

○ 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 관광을 촉진

- 채팅봇은 중심지에서 인근 관광지로의 접근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분산을 도모

○ 채팅봇 사업은 숙박세를 활용하여 실시

- 市는 2018년 10월 국제 문화관광도시로서 매력을 높이고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숙박세를 도입
 - 숙박세는 교토 시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자이며, 해당 숙박시설에 납부
 - 숙박세는 아름다운 경관 보전, 알기 쉬운 관광 안내, 교통체증·혼잡 해소, 전통 목조 가옥 보전, 불법민박 방지 등에 활용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61003.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 市는 2015년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교토의 매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토市 인정 통역 가이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이드 약 200명이 활동

모임·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이탈리아 / 사회·복지

이탈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임 및 외출 금지, 요식업소 영업시간 단축,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강화

배경

- 이탈리아 내에서는 2020년 2월 20일을 기점으로 북부지방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감염 및 사망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
 - 초기에는 롬바르디아를 포함한 북부지방 14개 시도에만 적색경보가 울렸는데, 이 경보는 3월 9일 긴급 발표된 ‘#나는집에남는다’ 법령으로 대체
 -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앞당겨서 4월 7일 시행하기로 결정

대책의 주요 내용

- 공공장소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금지
 - 공공장소든 민간 소유 공간이든 스포츠행사, 음악회, 종교행사,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모임을 금지
- 직장 출근이나 건강상의 이유(병원, 약국 방문) 외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가족당 한 사람에 한해 외부 출입을 허용
 - 집 밖에서 검문을 당하면 외출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보여주어야 함. 자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최대 3개월의 구금 및 최대 206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열, 기침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외출금지 위반뿐 아니라 상해 또는 의도적인 상해 시도로 보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음
 - 노인이나 건강상 위험한 사람에게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고의적인 살해 행위로 간주하여 2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는 허용. 노인들은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바와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소는 각별한 위생규칙과 대인(對人) 안전거리 1미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을 허용
 - 배달 서비스는 오후 6시 문을 닫는 시간 이후에도 허용
- 뷰티센터, 이·미용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음
-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출석이 4월 3일까지 금지. 대신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음
 - 4월 7일 의사면허 국가고시가 있는 관계로 대학 정규과정 이후 강의에 한해 위 금지조항에서 제외
- 관공서는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민(對民) 업무 수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http://www.governo.it/it/articolo/firmato-il-dpcm-9-marzo-2020/14276>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0/03/09/20A01558/sg>

<http://www.governo.it/it/articolo/decreto-iorestoacasa-domande-frequenti-sulle-misure-adottate-dal-governo/14278>

<https://static.gedidigital.it/repubblica/pdf/2020/cronaca/nuovomodulo.pdf>

<https://www.miur.gov.it/web/guest/-/coronavirus-il-7-aprile-gli-esami-per-l-abilitazione-alla-professione-medica>

서 동 화 통신원, dongwha.s@gmail.com

건물 신축 시 ‘유아놀이방’ 설립 의무화

인도 델리NCT / 사회·복지

인도 델리NCT 정부는 건물 신축 시에 ‘유아놀이방’ 설립을 의무화. 유아놀이방에서는 주로 ‘워킹맘’이나 저소득층의 6개월~6세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배경

- 인도에서는 2017년 출산급여법 개정안 통과로 6개월에서 6살 사이의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고 워킹맘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여성·아동개발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
- 최근 델리NCT에서는 핵가족과 여성의 고용 증가로 워킹맘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
 - 이에 델리NCT 정부의 델리개발국(Delhi Development Authority, DDA)은 건물 신축 시 유아놀이방(Childcare room, Crèche) 설립을 의무화하는 건축 내규 수정안을 승인함

주요 내용

- 유아놀이방은 6세 이하의 유아를 보살피고 교육하는 시설로,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이들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
 -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워킹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제공, 아동의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 신체적·사회적·정서적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 촉진, 더 나은 육아를 위한 부모 교육 등임
 -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면시설을 포함한 데이케어(Daycare) 시설 제공, 3세 미만 아동 대상 유아자극¹⁾ 및 3~6세 아동의 취학 전 교육, 영양 보충, 성장 모니터링,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임
- 비치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자료 및 놀이도구는 다음과 같음
 - 미취학 아동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놀이도구와 교육 및 학습자료 등

1) 유아자극은 아기의 주의력, 기억력, 호기심 및 신경계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활동

- 연령대에 적합하고 유아자극에 도움이 되는 장비, 가구, 장난감 등
 - 놀이활동을 위한 게임도구와 장난감을 포함한 교육 키트
 - 시청각 교육 자료
- 정원 및 이용 대상
- 유아놀이방의 정원은 25명 이하여야 하고, 이 중 3세 미만은 10명 정도가 바람직
 - 한 달에 최소 15일 또는 1년에 6개월 정도 일하는 워킹맘의 6개월에서 6세 사이의 유아, 저소득층 유아 등이 대상
-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 한 달에 26일, 하루에 7시간 30분 운영, 운영시간은 워킹맘과 상의한 뒤 조정 가능
 -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가정은 한 자녀당 월 20루피(약 320원)
 - 부모 월급이 12,000루피(약 20만 원) 이하이면 한 자녀당 월 100루피(약 1,600원)
 - 부모 월급이 12,000루피(약 20만 원) 넘으면 한 자녀당 월 200루피(약 3,200원)



FOR GREENER & 'HUMANE' CITY

- ▶ Childcare room proposed to be made mandatory for all public buildings and private establishments
- ▶ Modification in Unified Building Bye Laws for Delhi 2016 (UBBL 2016) proposed to give 20% space in parking areas of buildings for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 ▶ Adoption of Parks Policy modified to offer more options such as upgradation and maintenance, full maintenance, maintenance of a portion of the park, installation of facilities etc
- ▶ Work order for survey of 160 slum clusters on DDA and central government lands awarded
- ▶ Survey of 32 slum clusters completed; Agency for surveying 186 more slum clusters to be engaged soon
- ▶ Land use of 36.6 hectares in Narela district centre changed from commercial to public and semi-public to provide land for colleges, university, and create an institutional hub at Narela
- ▶ Land use of 14.6 hectares of commercial land at Mukarba Chowk changed to residentia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da-childcare-room-ev-charging-station-mandatory-in-all-new-buildings/story-S6unMJzKq2G9SEjx2O4SPO.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infra-push-dda-proposes-child-care-rooms-e-vehicle-facilities/articleshow/72481815.cms>

<https://wcd.nic.in/sites/default/files/National%20Minimum%20Guidelines.pdf>

https://wcd.nic.in/sites/default/files/Revised%20RGNCSScheme_210515.pdf

<https://wcd.nic.in/schemes/national-creche-scheme>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에서 노후 디젤자동차 통행 금지

스웨덴 스톡홀름시 / 환경·안전

스웨덴 스톡홀름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스톡홀름 남부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 이에 따라 유럽 배출량 기준 5 또는 6에 해당하는 최신 디젤차량만이 Hornsgatan 통행 가능



[그림 1] 2020년 1월 15일부터 노후 디젤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Hornsgatan

배경

- 스톡홀름 남부의 주요 도로인 Hornsgatan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 하나
- 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2018년 스웨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데 따름
 - 그동안 대기오염 개선을 촉구하는 녹색당의 압력이 있었음. 반면 스톡홀름 시의회 내 반대 세력들은 스톡홀름의 대기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막는 것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

주요 내용

- 유럽 배출량 기준 5(2009년 9월 1일 이후 적용) 또는 6(2014년 9월 1일 이후 적용)에 해당하는 최신 디젤차량만이 Hornsgatan 통행 가능
 - 2022년에는 유럽 배출량 기준 6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만이 허가될 예정
- 스톡홀름을 비롯한 스웨덴의 몇몇 도시(Gothenburg, Malmö, Mölndal, Uppsala, Helsingborg, Lund and Umeå)에서는 이미 대형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Class 1 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Class 2 환경보호구역은 Hornsgatan이 최초
 - 스웨덴의 공영방송 SVT에 따르면 매일 Hornsgatan을 지나가는 4,000대에서 24,000대의 차량이 앞으로는 해당 규제에 따라 다른 도로로 우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응급구조차량은 해당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음
- 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차량의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옵션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

[표 1] 유럽 배출량 기준

Stage	Date	CO	HC	HC+NOx	NOx	PM	PN
		g/km					#/km
Positive Ignition (Gasoline)							
Euro 1†	1992.07	2.72 (3.16)	-	0.97 (1.13)	-	-	-
Euro 2	1996.01	2.2	-	0.5	-	-	-
Euro 3	2000.01	2.30	0.20	-	0.15	-	-
Euro 4	2005.01	1.0	0.10	-	0.08	-	-
Euro 5	2009.09 ^b	1.0	0.10 ^d	-	0.06	0.005 ^{e,f}	-
Euro 6	2014.09	1.0	0.10 ^d	-	0.06	0.005 ^{e,f}	6.0×10 ¹¹ e,g
Compression Ignition (Diesel)							
Euro 1†	1992.07	2.72 (3.16)	-	0.97 (1.13)	-	0.14 (0.18)	-
Euro 2, IDI	1996.01	1.0	-	0.7	-	0.08	-
Euro 2, DI	1996.01 ^a	1.0	-	0.9	-	0.10	-
Euro 3	2000.01	0.64	-	0.56	0.50	0.05	-
Euro 4	2005.01	0.50	-	0.30	0.25	0.025	-
Euro 5a	2009.09 ^b	0.50	-	0.23	0.18	0.005 ^f	-
Euro 5b	2011.09 ^c	0.50	-	0.23	0.18	0.005 ^f	6.0×10 ¹¹
Euro 6	2014.09	0.50	-	0.17	0.08	0.005 ^f	6.0×10 ¹¹

[표 2] 스웨덴 내 배출 규제 지역 분류

Low emission zones	Light vehicles (cars, light lorries and light buses up to 3.5 tonnes)	Heavy vehicles
Class 1		As in the current low emission zones
Class 2	As of 1 January 2020: • Cars with compression ignition engines (diesel, hybrid electric, plug-in hybrid) in Euro 5 or better • Cars with spark-ignition engines (petrol, hybrid electric, plug-in hybrid, natural gas, E85) in Euro 5 or better • Electric cars • Fuel cell cars As of 1 July 2022: • Cars with compression ignition engines (diesel, hybrid electric, plug-in hybrid) in Euro 6 • Cars with spark-ignition engines (petrol, hybrid electric, plug-in hybrid, natural gas, E85) in Euro 5 or better • Electric cars • Fuel cell cars	Class 2 does not include heavy vehicles
Class 3	• Electric cars • Fuel cell cars • Cars that can run on natural gas in Euro 6	• Electric vehicles • Fuel cell vehicles • Plug-in hybrid vehicles in Euro 6 • Vehicles that can run on natural gas in Euro 6

<https://www.thelocal.se/20200115/the-stockholm-street-where-old-diesel-cars-are-banned-from-today>

<https://dieselnet.com/standards/eu/ld.php>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4/government-makes-announcement-on-low-emission-zones/>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추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도시계획·주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날로 악화되는 교통혼잡·체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국영철도공사 및 자카르타지하철공사와 손잡고 교통·주택·환경·경제 부문에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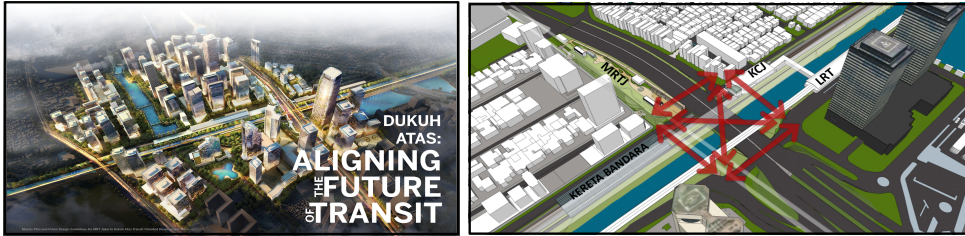
- 자카르타주의 악명 높은 교통혼잡·체증은 세계 대도시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
 - 현재 25% 수준에 그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통해 장기적으로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OD(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을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 자카르타 주정부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추진을 위하여 이미 2개 주정부 조례와 3개 주지사 행정령을 제정·시행하여 법제적인 준비를 마침
 - 2030년 지역공간계획에 관한 주정부 조례(2012년 1호), 용도지역지구제 및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주정부 조례(2014년 1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7년 44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관리의 주요 운영자로서 자카르타지하철공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7년 140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실행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9년 67호) 등으로 법제도적 준비를 완료
 - TOD의 개념을 도시 내·도시 간 다양한 기능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개발로 정의하고 개발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주정부는 TOD 추진을 통해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
 - 주요 개발주체로 국영철도공사(PT Kereta Api Indonesia)와 주정부 산하 공기기업인 자카르타지하철공사(PT MRT Jakarta)가 참여
 - 이들 기업이 도시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TOD 개발 추진

- 자카르타지하철공사는 TOD를 반영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미 마쳤고, 주지사의 승인만이 남았음
- 대중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반경 700m 지역을 걷기 좋고 살기 좋게 복합 개발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활성화
 - 용적률 규제 완화,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민간 개발회사에 제공하고, 대신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공공시설 공급에 투자
 - 도시 녹지 규제(도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급)를 고려하여 TOD 지역에 집중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대기 및 보행이동의 질을 향상
 - 또한,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재해에 취약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TOD를 추진
- 또한 자카르타의 TOD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도시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카르타지하철공사는 2019년 3월에 개통된 1호선을 따라 5개소에 총 5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할 계획
 - 월 소득이 1,800만 루피아(약 153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국영철도공사는 국영주택공사(PT Perumnas) 및 국영개발공사(PT Pembangunan Perumahan)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영 전철노선이 지나는 요지에 아파트 10개 동을 건설·공급할 계획
 - 이 중 8개 동은 자카르타가 아니라 대중교통 통근자가 많은 외곽의 2개 신도시에 건설
 - 민간 개발회사에 m²당 600만~1,500만 루피아(약 51만~127만 원)의 가격으로 토지 사용권을 30년간(연장 가능) 양도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
-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TOD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2019년 12월 중순에 자카르타지하철공사와 국영철도공사는 TOD를 전담하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 자카르타지하철공사가 지분의 51%, 국영철도공사가 지분의 49%를 보유
- 특히, 두쿠 아타스(Dukuh Atas) 지역은 6개의 대중교통수단이 교차하는 가장 전략적인 경제활동지역으로, 이미 146ha를 대상으로 몇 개의 TOD 사업이 진행 중
 - 국영 전철, 시영 지하철, 시영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공항철도, 일반 버스가 서로 도보 5분 이내 범위에서 교차

- 운하·고가도로에 의해 분단된 대중교통수단을 통합하고 보행자 회랑을 조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배수·하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
- 한편, 두쿠 아타스 TOD 마스터플랜은 싱가포르 계획가협회(SIP)로부터 2019년에 ‘올해의 해외 부문 최고 계획’으로 선정
- 아파트 31,410호, 보행로 총연장 10.6km(고가 보행로 1.6km 포함), 공유 자전거 주차장 5개소, 녹지 공원 10.3ha 공급 및 수변공간 1.6km 개선이 주요 내용임



두쿠 아타스 TOD 원칙



1. 복합용도

강소성과 보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승역에 바로 인접하는 복합용도개발 밀집



5. 사회적 형평성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고용 및 주택소유 기회 제공



2. 밀도 최적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승역 주변의 개발밀도 최적화



6. 환경적 지속가능성

새로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3. 연결성 증대

교통수단 간에 끊어짐이 없이 바로 환승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7. 회복 탄력적인 인프라

기상 이변을 견디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설계



4. 거주 적합성 향상

매력이 넘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8. 경제적 재생

투자 및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끌어들이고 지원하는 도시계획 수립

자카르타 주정부, 대중교통 지향형 지역 개발에 관한 포커스 그룹 토론자료, 2019년 8월 1일,

<http://jakberketahanan.org/wp-content/uploads/2019/08/FGD-TOD-DRD.pdf>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2/31/transit-oriented-development-to-help-modernize-jakarta.html>

<https://www.idntimes.com/news/indonesia/aulia-fitria/mrt-jakarta-dan-pdw-architects-dapat-penghargaan-dari-sip-awards>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일본 도쿄都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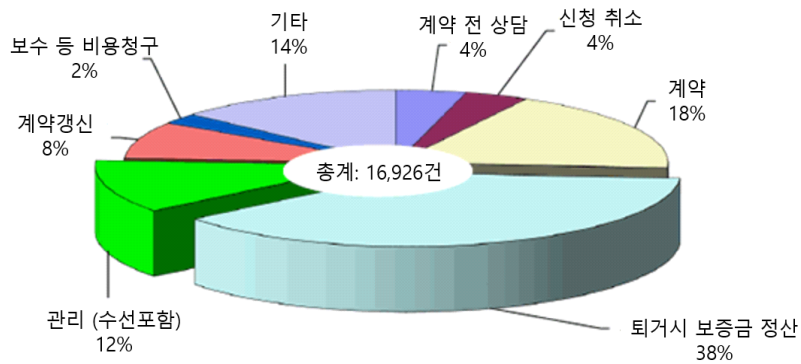
일본 도쿄都는 2019년 12월부터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의 다국어지원을 실시. 도쿄都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입주가 급증하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의 원활한 입주 지원과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서비스를 실시

배경

- 도쿄都에서는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都에서는 임대주택 퇴거 시 정산 및 입주기간 중 수선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를 2004년 제정했으며, 조례의 해설서 형식으로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 개정(2017년 10월 공포·시행)과 택지건물거래업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작성
- 최근 외국인의 임대주택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시작
 - 최근 도쿄都에 외국인 입주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생활상담 중 1위가 임대주택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일본의 주택거래 관습을 소개하고 분쟁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의 영어판을 작성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요점만 정리한 리플렛을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 만들어 배포

주요 내용

- 임대주택 관련 주요 상담내용
 - 도쿄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40%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분쟁 관련 주된 상담내용으로는 계약 및 퇴거 시 보증금 정산, 관리(수선 등) 등이 있음



[그림 1] 2016년도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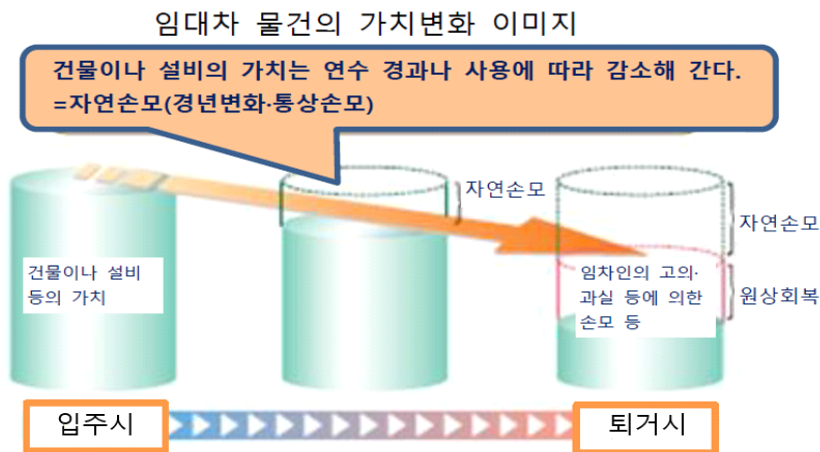
출처: 도쿄도 도시정비국에서 전화 및 창구 상담한 내용

○ 조례의 주요 내용

- 퇴거 시 주택 등의 복구 관련 내용(원상회복의 기본 개념)
-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 관련 내용(입주기간 중 수선의 기본 개념)
- 실제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부담 내용(특약의 유무나 내용 등)
- 입주기간 중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

○ 원상회복의 기본 개념(원칙)

-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통상의 사용방법에 벗어나는 사용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주택의 손모(損耗)나 흠 등의 복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함
- 경년(經年) 변화 또는 통상의 사용에 의한 손모 등의 복구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함



[그림 2] 원상회복의 기본 개념(원칙) 이미지

○ 가이드라인 설명 의무화

-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는 계약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도록 택지건물업자에게 의무화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보증금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택지건물업자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설명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지사는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택지건물업자의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을 공표할 수 있음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310-0-jyuutaku.htm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310-23-jyuutaku.htm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tintai/pdf/310-23-00-jyuutaku_ko.pdf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도시경관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 강화 및 광고세 신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도시계획·주택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 또한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배경

- 암스테르담市는 공공공간의 상업화를 막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광고세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옥외광고는 건물 입면(파사드), 벽면 돌출 간판, 현수막 및 깃발, 입간판,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설치된 스크린, 간판, 기타 대형 텍스트 등을 포함

주요 내용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모든 옥외광고는 최소 6초 이상 정지화면으로 유지되어야 함
 - 또한 살아 있는 동물을 착취하는 판촉 행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광고도 전면 금지
-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세워 전면을 천으로 덮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침. 특히 밤에는 광고를 밝히기 위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
 - 새로운 조례 도입으로 비계 광고는 市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약 20만 원)를 지불해야 함
 - 동구와 남구의 경우 광고가 인쇄된 천을 생산하는 대행사 역시 경관조례 및 주민 편의 등과 관련하여 관공서와 협의해야 함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광고를 위한 비계 설치가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

- 광고가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광고 설치 자체가 위험하거나 기타 시민 불편 및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 공공공간의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 신서구(Nieuw-West), 북구, 남동구 지역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중구에서도 전면 금지
- 비계 없이 건물 입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
 - 이때 교통안전, 환경영향, 도시경관, 공공장소로서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입면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일반 건물이라 하더라도 조명 등의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광고 설치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 2020년부터 광고세를 납부해야 함
 - 광고세가 적용되는 경우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
 - 도시의 혼잡도에 따라 세율을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
 - 최근에 개발된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지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된 도심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
 - 市の 옥외광고 수입은 연간 약 1,400만 유로(약 185억 원)로, 이번 규제 강화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광고세 도입이 다소 해소해 줄 전망

향후 계획

- 지역 내 소상공인이 개업, 판촉행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광고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배려할 계획
 - 대형 광고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설치하고 있어, 이들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옥외광고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이번 규제와 광고세 도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다국적 대기업 간의 격차 역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점

- 대도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은 심야시간대 보행 및 운전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영상 등 화면 전환이 빠른 광고로 인해 눈부심 등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지하철 내부 광고 노출 시간이 길면 도착역이나 운행정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minder-reclame/>

<https://www.amsterdam.nl/en/news/advertising-tax-2020/>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9DE274DC-5C5C-4E5D-A8A3-12B91B5AB250%7d>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88A760A5-AEB1-4D45-B24D-495D4A361DD6%7D>

<https://www.amsterdam.nl/veelgevraagd/?productid=%7bE4028183-3F5D-4638-B104-F75D094C7D06%7d>

<https://www.nrc.nl/nieuws/2020/01/30/stadsbestuur-beperkt-opdringerige-reclame-in-openbare-ruimte-a3988607>

<https://www.parool.nl/amsterdam/het-moet-rustiger-gemeente-stelt-paal-en-perk-aan-reclame-uitingen~b3b6ec8b/>

<https://www.parool.nl/amsterdam/stadsdeel-zuid-stopt-met-reclames-op-steigerdoeken~b1713660f/>

<https://www.parool.nl/amsterdam/wel-steigerdoek-met-reclame-maar-geen-werkzaamheden-mag-dat~bed507d4/>

<https://amsterdam.sp.nl/nieuws/2020/01/stadsbestuur-wil-opdringerige-commercie-in-sstraatbeeld-minderen>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75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4월 13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